

국제화에 따른 낙농산업의 과제와 전망



조 석 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2014년 갑오년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1년간 낙농업계에 있었던 중요한 사안 몇 가지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 국제화에 따른 낙농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2013년 8월에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12년 만에 재연된 원유수급불균형 문제다. 이 두 가지 낙농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낙농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실 허리에 매어 못 쓴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낙농 문제에 대한 정책의 접근방식을 지켜보면서 마치 바늘 실을 허리에 맨 채 낙농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꿰매려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낙농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FTA 시대를 맞아 국내 낙농이 직면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표 1〉 FTA 유제품 양허내용

품목		한·뉴 FTA	한·호 FTA	한·캐 FTA	한·미 FTA	한·EU FTA
분유	○ 탈지분유·연유(176, 89%)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TRQ
	○ 조제분유(36, 40%)	13/15년+TRQ	13/15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 혼합분유(36%)	10년/15년	13년/15년	양허제외	10년	10년
치즈	○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12/15년+TRQ	20년/18년+TRQ	양허제외	15년+TRQ	15년+TRQ
	○ 체다치즈(36%)	7년+TRQ	13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버터	○ 버터(89%)	10년+TRQ	15년+TRQ	양허제외	10년+TRQ	10년+TRQ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실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바탕 위에서 점차 증폭되고 있는 낙농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미 발효된 EU, 미국과의 FTA를 포함하여 2013년 말부터 약 1년여에 걸쳐 체결된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의 동시다발적인 FTA가 금후 국내 낙농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 1〉은 이미 FTA가 발효된 미국, EU를 포함한 영연방 3국과의 FTA 협상타결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한·미 FTA에서 한국은 전·탈지분유·연유, 치즈, 버터 등 주요 유제품에 대해 다량의 무관세할당(TRQ)을 허용하였으며, 최장 15년에 걸쳐 거의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했다. 이 같은 미국과의 불리한 협상결과는 그 후 EU 및 최근의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금후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주요 유제품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낙농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최근과 같은 원유수급불균형 하에서도 한국과 FTA를 체결한 위의 5개국 중 이미 협상이 발효된 EU, 미국으로부터의 유제품수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EU는 한국에 주로 혼합분유, 유장, 치즈 등을 수출하며, 혼합분유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다. 그런 가운데 2015년부터 EU의 쿼터

제가 폐지된다. 그 경우 생산증가에 따라 EU의 한국에 대한 유제품수출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소련에 대한 EU의 유제품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EU 시장의 유제품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EU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EU와 함께 FTA가 발효된 미국이다. 미국은 2011년 이래 유제품 재고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전체 원유생산량의 약 25%를 수출하였다. 그 가운데 2013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치즈수출액이 무려 2억 1백만 달러로, 1위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연간 1인당 치즈소비는 일본과 같은 2.2kg을 나타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 2013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유제품 총 수출액은 3억 1백만 달러로, 3억 4백만 달러의 일본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금후 10여년에 걸쳐 관세가 점차 철폐됨에 따라 미국산 치즈, 유장 등의 수입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에 최근 호주, 뉴질랜드 등 낙농 강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시장을 둘러싼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 수출국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는 현재도 미국에 이어 한국에 치즈를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는 치즈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년간(2003~13) 한국의 연간 1인당 시유소비는 2003년의 38.2kg을 정점으로 2013년 현재 33.5kg까지 하락하여 연평균 -1.3%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우리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의 연간 1인당

시유소비는 1994년의 41.6kg을 정점으로, 2013년 현재 30.8kg까지 하락하여 연평균 -1.6%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원유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백색시유비율은 각각 67.5%와 40.6%로 한국이 월등히 높다.

이 같은 국내의 시유소비구조를 감안할 때 최근의 원유수급불균형은 공급측 요인과 더불어 시유소비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런 가운데 2013년 현재 원유로 환산한 연간 1인당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71.3kg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우유·유제품소비에 있어서 시유소비의 감소를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저가의 수입유제품이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우유자급률이 2001년의 77.3%에서 2013년 현재 58.4%까지 하락하여 일본의 64.0%를 하회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그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낙농이 직면한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의 조기정착을 통한 원유의 계획생산과 함께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및 국산유제품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유급식제도의 개선과 함께 가공쿼터의 설정 및 일정 한도의 가공쿼터에 대한 가격보전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유제품의 파고 속에서 국내 낙농은 점차 생산기반축소를 강요당해 마침내 쿼터삭감과 낙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15년 새해는 그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대한민국 낙농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원년으로 기억되기 위해 생산자, 유업체, 정부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낙농제도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낙농산업구성원 모두는 각자 무엇을 챙길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먼저 양보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